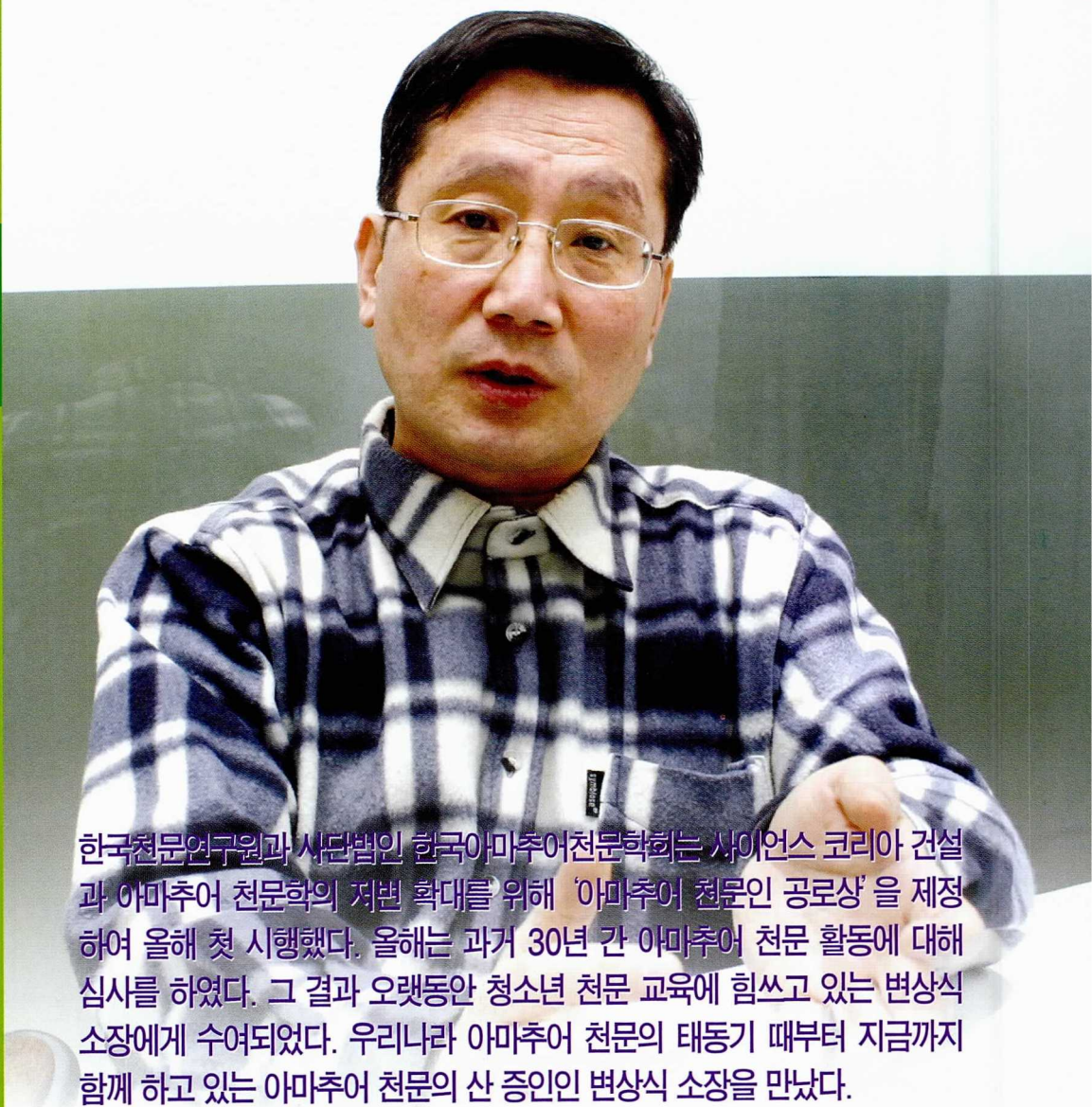


한국우주소녀단 과학미디어센터

# 변상식 소장



한국천문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는 사이언스 코리아 건설과 아마추어 천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아마추어 천문인 공모상'을 제정하여 올해 첫 시행했다. 올해는 과거 30년 간 아마추어 천문 활동에 대해 심사를 하였다. 그 결과 오랫동안 청소년 천문 교육에 힘쓰고 있는 변상식 소장에게 수여되었다. 우리나라 아마추어 천문의 태동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아마추어 천문의 산 증인인 변상식 소장을 만났다.



청소년에게 별과 꿈을 주고 싶은 사람  
아마추어 천문인 공모상 수상자 변상식 소장

변상식 소장은 서울대 천문학과 출신이다. 현재는 천문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 당시 천문학은 생소한 학문이었다. "가족에게 천문학과 진학 계획을 얘기했다니 너 왜 그러냐 라는 말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문학이라는 미지의 바다에 용감히 발을 내딛었다.

### 너 왜 그러냐

별에 대해서는 어렸을 적부터 관심을 갖고 있긴 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을 학문으로 연장하기에 당시 환경은 열악했다. 학과도 몇 개 없었고, 관련 정보를 얻기도 힘들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생 선배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학과 소개를 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때 온 선배 중 한 사람이 바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설립 당시 소장으로

취임한 김두환 박사였어요."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다른 것을 해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던 그에게 선배로부터 들은 얘기는 천문학과로 마음을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천문학과를 가겠다는 그의 생각에 가족은 물론 학교에서도 크게 반대하였다. "제가 막내라는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너 하고 싶은 것 해보라며 많이 밀어주었죠. 학교의 반대도 과보다 지방에서 서울의 일류대에 간다는 사실로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 천문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은 어린이회관 천체과학실. 취미로써 천문학을 하는 인구가 거의 없던 시절, 학문으로써 순수 천문학을 했지만 아마추어 천문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메마른 청소년들의 정서를 적혀줄 수 있는 해법은 천문 교육이라고 강조하는 변상식 소장.

그의 첫 걸음은 청와대의 지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선물 받은 니콘 망원경을 어린이회관에 기증한 것이다. 구경은 60mm로 현재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망원경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망원경이었다.

“그 당시에 천체망원경은 보기 힘든 물건이었어요.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잘 만들어져서 아주 또렷한 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체망원경을 구경하기 힘든 시절에 이 망원경은 굉장한 장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말에는 미 8군 부인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상당량의 과학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측 장비가 하나씩 갖추어지고, 플라네타리움을 통해 실내에서 별자리 교육도 가능하게 되자 이젠 밖으로 나가 진짜 밤하늘을 볼 준비를 하였다.

### 통금, 그리고 남녀칠세부동성

“그런데 플라네타리움에서 실제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이 밤을 샌다는 것이 그 당시로써는 쉽게 용납되지 않았으니까요. 더구나 야간 통행 금지도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직접 오셔서 보시라고 했어요. 문제 발생 시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 안 해도 되는 일 만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반 농담이긴 했지만 정신 나간 놈이라는 얘기도 들었으니까요.”

마침내 1976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밤샘 관측회를 실행에 옮겼다. 모인 인원도 60여 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었다. 어린이회관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있었지만 시 외곽이어서 밤하늘의 조건도 좋았다.

“그 당시 함께 별을 보던 친구들은 요즘도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은 모입니다. 감수성 많은 학창 시절에 별로 맺어진 인연을 만들어 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어린이회관과 첫 인연을 맺으며 현재까지 변상식 소장은 한국우주소년단을 통해 청소년들의 천문 교육에 힘쓰고 있다. 늘 학생들과 만나고 함께 하다 보니 동년배들 보다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한다.

“뒤돌아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대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우주에 대한 낭만과 동경심 등 감성이 풍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방송, 책, 인터넷 등을 통해 넘치는 과학 정보를 접하다보니 이런 감수성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사진 속에서 화려한 모습만 본 학생들에게 정확한 우주의 모습을 인식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메마른 정서를 촉촉이 적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바로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대의 벽을 허물어보자

요즘은 어린이고, 어른이고 또래끼리 모인다. 하루가 다르게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별 축제가 열리면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축제를 즐기고, 별을 봅니다. 어른이고, 어린이고 망원경을 통해 달을 한번 보면 그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릅니다. 밤하늘을 보는 취미는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취미인 것입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학문이 천문학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주를 바라보고 동경하는 것은 인간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시간 천문 교육을 하다보니 관련 교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변상식 소장은 요즘 과학 기자재를 직접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천문 선진국에서는 교육 기자재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의 필요성을 느껴 늦게나마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자재도 문제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교육입니다. 현재 망원경이 없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룰 줄 아는 선생님도 많지 않죠. 그래서 교사 연수할 때 직접 만지고 동작해보도록 합니다. 또한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부담되는 늦은 밤이 아닌 초저녁에 초생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백 번 보는 것보다 한번이라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창립이사로 우리나라 아마추어 천문학의 탄생 때부터 변함없이 늘 함께 해온 변상식 소장의 앞으로의 계획은 30여 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라는 세대들에게 별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작은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감성을 심어주고 싶을 뿐이다.